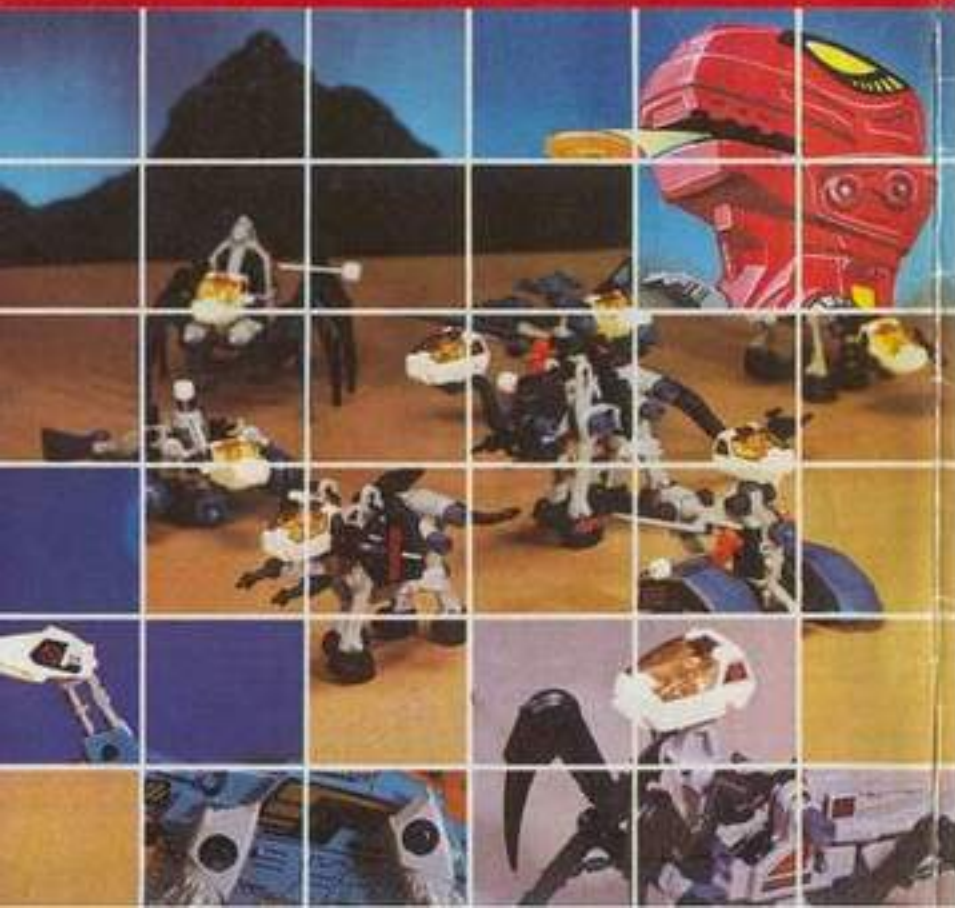


미래세계의 기계동물

ZOIDS

쥬이드



쥬이드 이야기

지구 인류가 태양계의 모든 혹성에 진출한 후 바야흐로 태양계 간의 여행을 목전에 두고 있는 우주 대항해 시대—시기 2525년, 지구의 우주 정거장에서 한 척의 거대한 우주선이 떠난다 —우주선 이름은「그로발 3호」.

신천지로 이주하려는 개척이민들과 우주의 신비를 벗기려는 과학자들, 일확천금을 꿈꾸는 「갤럭시 신디케이트」조직원들, 그외에 우주탐험을 즐기려는 모험이행자들 등등.

5000여명의 승객을 태운 「그로발 3호」는 불과 하루도 되지 않아 태양계를 벗어난다. 냉동수면 상태에 있는 승객과 승무원을 태우고 초광속 비행을 하던 「그로발 3호」는 이윽고 온화하게 중심으로 태양계와 정반대에 위치한 「쥬이드」태양계를 발견한다.

지구가 있는 태양계와 꼭 닮은 「쥬이드」태양계(Z태양계)에는 중형태양을 중심으로 6개의 혹성이 있으며 제2혹성(ZP-02)에는 불가사의한 생물군과 사고력을 갖춘 생명체가 존재하는 것이 우주선내의 컴퓨터로 확인되었다.

「그로발 3호」의 승객들이 냉동수면 상태에서 깨어나 Z태양계의 광란에 환호할 즈음,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한다. 「타이스」를 두목으로 하는 「갤럭시 신디케이트」조직원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목전의 이민만을 추구하는 그들은 지구 출발 때부터 우주선의 선장과 대립을 보여 왔고 이제 지구와 똑같은 제2혹성(ZP-02)을 발견하자 본래의 야욕이 표면화 된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거대한 우주선은 여기저기 극심한 피해를 입고 조종계통마저 파괴되어 항해 불능 상태에 빠지고 만다. 「갤럭시 신디케이트」조직원들은 「그로발 3호」에 탑재된 소형구조선을 탈취하여 일부 승객들을 인질로 하고 제2혹성을 향해 탈출한다. 남아 있는 선장측 승무원과 승객들은 우주선 폭발의 위험에 처하나 보조컴퓨터의 도움으로 제2혹성의 대기권 안으로 돌입하는데 성공한다.

그리고 곧이어 요란한 굉음과 함께 불시착하게 되었으나 우주선의 착륙용 다리는 부셔져 나가고 선체는 수리 불가능하게 파손된다. 선장을 포함한 많은 승무원들은 결국 생명을 잃고 말았으나 승객들은 파괴된 우주선에서 전원 무사히 빠져 나온다.

제2혹성의 풍경은 파괴된 지구의 모양이 현상될 정도로 살벌하지만 바다도 있고 강물도 흐르고, 초원과 수풀이 광대하게 펼쳐져 있었다. 특징적인 것은 날카롭게 솟아 오른 높은 바위선이 많이 눈에 띄는 것이었다. 「그로발 3호」는 그런 바위산들로 연결된 대산맥의 기슭에 있는 사막지대에 불시착했던 것이다.

얼마가 지나자 우주선을 빠져 나온 일행앞에 정찰대로 보이는 괴상한 모양의 생물체가 나타났다. 한 놈은 지구의 고생대에 번성했던 공룡처럼 생겼고 또 하나는 그 공룡을 조종하는 놈인데 사고력을 갖춘 생명체로 보였다.

두발로 걷는 그 생명체는 자기를 「조이드 인간」이라고 소개하고 공룡은 기계 동물「조이드」이며, 제2혹성을 「조이드 혹성」이라 부른다고 했다. 이것이 조이드 인간과 지구인의 첫 대면이다. 조이드 인간은 일행을 자기들의 도사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이때 하늘에서 날개달린 용처럼 생긴 기계동물들이 갑자기 공격을 해왔고 거기에는 다른 조이드 인간들이 타고 있었다. 그러자 마쳐 지구인 일행을 보호하기 위한 듯이 지상에도 새로운 조이드 기계동물들이 나타나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곧 하늘의 기계동물들이 물러 갔다.

지구인들이 안내된 도시는 석조건물로 구성된 도시국가 형태였으며 문명 정도는 농경주입을 주로 하는 단계였고 지구인과 사교나 감정이 호사했다. 지구에서의 조사에 따르면 조이드 혹성은 공룡시대 직전까지 지구와 똑같이 발전해 왔으나 공룡시대로 들어서면서 갑자기 생물학적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 변화는 온하게 전체에 미친 것으로 지구에는 공룡이 멸종. 이는 이번으로 나타났다. 이곳 조이드 혹성에는 모든 생물들이 금속성을 지닌 생명체로 진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현재 조이드 인간들은 군소국가를 통일해 가는 과정으로 양대 세력의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 중이었다. 선장측의 지구인들을 구출했던 조이드 인간들은 민주주의 방식의 「헤리크」공화국 조이드 인간들이며, 그들과 싸우는 세력은 귀족 노예제를 택하고 있는 「제네바스」제국으로 우주선이 불시착하며 하늘에서 공격해 왔던 자들이다.

이 양대 세력의 주요무기는 야생의 기계동물들이며 그것은 금속체포로 되어 있어서 기계동물 한마리가 중량이 5톤에서 150톤에 이르는 거대한 것들이었다. 지구인들이 구출된 지 수개월 후, 수차례 걸쳐 공화국을 공격해 오는 제국 군인의 각종 선무기와 장비에 지구인이나 공화국의 조이드 인간들이나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제국측 조이드 부대의 각종 기계동물들은 지금까지 없었던 무거운 방어장비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무기도 조이드 인간들이 본 적이 없던 중화기로 바뀌어 있지 않은가? 그것은 조이드 혹성 이외의 문명, 곧 지구의 문명이 가해진 것이 분명했다. 소형 구조선으로 탈출했던 「갤럭시 신디케이트」일당들이 제국측과 손을 잡고 조이드 혹성을 침략하려고 하는 것이다.

공화국의 지구인들은 이에 맞서 불시착한 우주선의 파괴된 자재를 이용하여 공화국 조이드 부대의 개조작업에 착수했다. 방어장비에 중점을 둔 제국군에 반하여 공화국의 조이드 부대는 경량화와 기동성에 중점을 두어 강화금속을 사용하여 개조되었다.

그 직후 지구인들의 도움으로 각각 중무장된 조이드 혹성의 양대세력은 국가 존망의 운명을 걸고 제1차 조이드 세계대전을 일으킨다. 수세기 전에 지구에도 있었던 참담하고 어리석은 세계대전처럼— 과연 조이드 혹성의 운명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후의 이야기는 조이드 시리즈 2탄에서 계속됩니다.)



영밀업

경기도 부천시 도당동89-4
(764)2011~3

고지라

「조이드」혹성의 공화국측과 제국측은 날이 갈수록 대립이 심해져지고, 드디어 제국측에서는 성질이 난폭한 ‘고지라’를 레이저 무기로 중무장시킨다.

‘고지라’는 원래부터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나 눈이 멀어서 마음대로 행동할 수가 없었으므로 제국측에서는 ‘크리켓’이라는 간악하면서도 영리한 기계동물로 하여금 ‘고지라’의 눈역할을 할 수 있게 하였다. 포악하고 파괴적인 본능을 갖고 있는 ‘고지라’는 크리켓과 짝을 이루면서 강력하고 완벽한 전투기계 동물의 면모를 갖추었다.

- 크리켓의 원격조정에 따라 4단계로 움직인다.
- 한번에 10개의 레이저 원반을 발사할 수 있다.
- 팔을 상하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다.





페가사로스(시조새형)

원래는 조이드 후성(ZP-02)의 공중 기계동물로서 다른 기계동물을 잡아먹는 사냥고도 흉칙한 육식동물이다. 순수한 전투용 기계동물로 개조되었다. (소비자 권장가: 2,000원)

■ 날개를 밀려이며 전진합니다.

스파이더(왕거미형)

원래는 조이드 후성(ZP-02)의 육상 기계동물로서 가벼운 몸과 마음대로 움직이는 다리를 갖고 있다. 고속의 육상 탐지기로 개조되었다. (소비자 권장가: 2,000원)

■ 8개의 다리를 교대로 움직이며 전진합니다.



고르고도스(공룡형)

원래는 조이드 후성(ZP-02)의 육상 기계동물로서 온순한 성질을 갖고 있다. 등에 있는 지느러미는 레이더와 방패전과 발전기였으나 기능을 강화하여 육상탐지기로 개조되었다. (소비자 권장가: 2,000원)

■ 4개의 다리를 움직이며 전진합니다.



엘레판타스(코끼리형)

원래는 조이드 후성(ZP-02)의 육상 기계동물로서 두껍고 견고한 몸을 가지고 있어 중장갑 육상 탐지기로 개조되었다. 큰귀에는 고성능 3D 레이더를 갖추고 있다. (소비자 권장가: 2,000원)

■ 귀와 4개의 다리를 움직이며 전진합니다.



크라이도라(페리칸형)

원래는 조이드 후성(ZP-02)의 공중 기계동물로서 경쾌한 운동기능을 갖고 있어서 공간탐지기로 개조되었다. 소형으로 공중격투 성능이 뛰어나다. (소비자 권장가: 2,000원)

■ 날개를 밀려이며 전진합니다.



아쿠아돈(개구리형)

원래는 조이드 후성(ZP-02)의 수륙 양용 기계동물로서 특히 수상기능에 뛰어나고 주배수탱크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고성능 잠수정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 (소비자 권장가: 2,000원)

■ 2개의 다리를 내저으며 전진합니다. (물 위에서도 움직입니다)



스콜피온(전갈형)

원래는 조이드 후성(ZP-02)의 육상 기계동물로서 마음대로 신속하게 움직인다. 개조된 특별한 형태의...



02)의 육상 움직이는 다리를 가지고 고도의 육상탐지기로 동물이다.
(소비자 권장가: 2,500원)

■ 8개의 다리를 교대로 움직이며 전진합니다.



고도스(공룡형)

원래는 조이드 혹성(ZP-02)의 육상 기계동물로서 다른 기계동물을 잡아먹는 사납고 무서운 육식동물이다. 강력한 힘을 가진 전투용 기계동물로 개조되었다.
(소비자 권장가: 2,500원)

■ 두발로 서서 힘차게 걸어 갑니다.



하이도카(공룡형)

원래는 조이드 혹성(ZP-02)의 육상 기계동물로서 도마뱀과 같이 몸에 재생기능이 있다. 제어계통을 추가하고 소화기를 갖추어 보병용 장갑차로 개조되었다.
(소비자 권장가: 2,000원)

■ 4개의 다리를 움직이며 전진합니다.



스파이카(사마귀형)

원래는 조이드 혹성(ZP-02)의 기계동물로서 파충류에서 진화된 무섭고 흉칙한 동물이다. 강력한 공격능력을 갖춘 육상탐지기로 개조되었다.
(소비자 권장가: 2,000원)

■ 4개의 다리로 무섭게 전진합니다.

변신 스트라토

(소비자 권장가: 6,000원)

■ 암모스, 디나사우루스, 몬스타오토바이, 달리는 사우루스 등의 네가지 형태로 변합니다.

■ 앞바퀴를 당기면 불꽃을 내면서 빠른 속도로 달립니다.

■ 건전지가 필요없는 작동 완구입니다.



이것이 조이드의 1가지 매력이다!

1. 접착제가 전혀 필요없는 조립식 작동완구

조이드의 조립은 각 부품을 고무캡으로 끼워 맞추도록 되어 있어 접착제나 도구가 필요 없으며 누구나 손쉽게 조립하여 조이드를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2. 정밀한 태엽식 미니 기아 박스로 힘찬 작동

조이드의 동력원은 태엽식의 미니 기아 박스로 정밀하고 완벽하게 조립되어 있어 힘차게 움직이게 합니다.

3. 미니 기아 박스에 연결된 실감있는 관절운동

각각의 기계동물들마다 실감있는 관절운동을 하며 미니 기아 박스에 연결된 작동 부품을 통해 기계적인 운동에 관한 좋은 공부가 됩니다.

4. 무한히 개조할 수 있는 창작적인 완구

분해 조립이 간단하기 때문에 다른 조립식 완구의 부품(로켓트, 안테나 등)들을 접착제로 붙여 전혀 새로운 조이드를 창작할 수 있으며 칼라펜이나 케인트로 색깔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